

“호메로스는 왜 지금도 읽히는가.”  
“햄릿은 왜 여전히 망설이는가.”

# 202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, 〈서구문학의 정전〉 수업이 열립니다.

이 수업에서는 신과 영웅의 이야기에서 시작해, 중세의 신앙 세계, 르네상스의 인간 발견, 근대 도시와 개인의 탄생까지 서구문학의 큰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. 사랑, 운명, 욕망, 죄, 망설임, 젠더, 타자, 그리고 서구가 상상한 ‘동양’의 이미지까지, 고전 속에 담긴 흥미로운 질문들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. 오래된 작품을 읽지만, 우리가 던질 질문은 지금 이 시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

이 수업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. 더운 여름 시원한 강의실에서 위대한 작가들과 대화하며, 고전을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탄생시키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.

## 📖 주요 텍스트

『오디세이아』, 『오이디푸스 왕』, 『변신이야기』,  
『신곡』, 『베니스의 상인』, 『햄릿』, 『페드르』,  
『파우스트』, 『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』, 『변신』,  
『오만과 편견』

## 🏛️ 강의 정보

- 📖 과목명 : 서구문학의 정전
- 🎓 학점 : 3학점
- 👤 대상 : 학부생
- 💬 수업방식 : 강의 · 발표 · 토론

관심 있는 학생은  
추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세요.

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 
편하게 연락 주세요.

👤 김지희  
☎ 010-2353-1212  
✉ tellingtaleson@gmail.com

